

2012년 KB국민은행-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운아띠 8기를 모집합니다!

熠(빛날 습)

- 1.형성문자: 불 화(火)+익힐,되풀이할 습(習)
- 2.기본의미: 되풀이해서 닦으면 불빛이 일어난다.
-> 빛나다
- 3.확장의미: 1.빛나다 2. 곱다 3.선명하다 4.빛
- 4.신생의미: 1. 라운아띠 8기 모집 포스터에 캄보디아 팀의 사진이 실린다.
2. 그리하여 전국의 대학에 우리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여지다.
3. 따라서 우리는 '전국구'가 되었다.

햇빛 그을린 네가 좋다!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

熠 습

빛날 습

5월

캄
팀
보
고
서



5월, 우리들의 활동 달력.

| | 1 | 2 | 3 | 4 | 5 | 6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놈유치원(바다생물그리기) 중학교 밥퍼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텝한국어 쌀라아띠 크마에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놈 중학교 쌀라아띠 대박집 외식 바칼로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학교 체육대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배 |
| 7 | 8 | 9 | 10 | 11 | 12 | 1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쫁크니어 유치원 쌀라아띠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프로그램(떠들맞추기) 스텝한국어교실 쌀라아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년기원휴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밥퍼 쌀라아띠 스텝한국어 크마에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밥퍼 프놈중학교 쌀라아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배 캄푹휴가(아띠 whit 가영)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 12시 도착 웁 해수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꼬 국립공원 씨엠립 도착(새벽4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밥퍼 스마일 오브 앙코르 공연관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라아띠 부원장님과 회의 (프놈중학교 관련) 스텝한국어 바칼로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아 아픔 쌀라아띠 스텝한국어 도서 번역작업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학교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아 인터네셔널 입원 나래 응급실 4차 kt&g봉사자 공항마중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쫁크니어 유치원 (양초 그리기) 쌀라아띠 빵퍼페인팅과 집짓기 노아 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라아띠 유치원 수업 참관 바나나잎 집짓기 도서관프로그램 (풍선아트) 퐁퐁 대량생산 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놈유치원(양초 그리기) 프놈중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라아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놈중학교 쌀라아띠 회의와 바칼로레아 도서번역 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학교 인형극준비(배경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배 대청소 및 거저축제 준비 최일도목사님 공항 마중 |
| 28 | 29 | 30 | 3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저축제 준비 쫁크니어 유치원 (줄넘기와 태권무)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저축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형극 최종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라아띠 인형극 회의 | | | |

거저축제

2012년 5월 29일. 다일공동체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거저축제**를 했다. 그 동안 거저 후원받은 물품들을 거저 나누어주는 행사로써 아피와 다일 식구 모두가 거저축제 전 며칠부터 창고에 쌓아두었던 물품들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강당으로 옮겨 진열하는 작업을 했다.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신발, 학용품, 장난감, 옷, 가방 등의 물품을 준비하였고 축제 당일 아피는 엄청난 인파에 놀랐고, 장시간의 축제로 지쳤지만 큰 행사를 함께 해낸 것에 대해 모두들 뿌듯해했다.



무사히 축제를 끝내고 나서 다양한 시각으로 **거저축제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 거저 축제에 대한 **경서는** 생각 없이 부딪힌 느낌이었다고 한다. 옷의 분류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간이 5분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이즈에 맞지 않은 옷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바뀐 다일 스태프들도 처음 맞는 큰 행사고 우리도 처음 맞이하는 행사라 미흡했던 것 같다. 그리고 1인당 3개씩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나중에 옷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너무 적게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저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이었다. **성희는** 큰 이벤트였으나 스스로는 큰 의의가 없었다고 한다. **거저 준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라면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았을 것 같다. 오히려 남이 1개라도 더 가져가는 것에 대해 욕심만 더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거저축제에 온 사람들 중에는 공짜로 물건을 가져갈 만큼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닌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새것, 그리고 브랜드 옷을 더 선호하고 추천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브랜드 집착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나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의 큰 축제임에도 비전트립팀(이사장님 방문)을 위한 **보여주기 식의 행사**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준비과정에서 “괜찮아, 이런 옷도 이 곳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스태프들의 태도가 싫었으며, 여러모로 씁쓸한 축제였다. **하늘이는** 표를 나누어 준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물건은 제대로 분류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나누어 준 것 같지도 않다.** 나중에 남은 옷이나 물품들은 이곳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창고에 넣었다. 그런 옷이나 물품들은 걸러 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 손녀의 물건을 챙기는 모습이 짠했다. **정민이는** 우선 대규모 봉사단이 왔을 때, 인력을 그곳에 투입하지 않아서

30-40명의 해야 할 큰 행사를 이곳의 몇 십 명의 스태프로 해냈다는 사실에 대해 중요한 행사를 단 시간 내에 준비했고, 축제 중 곳곳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 아쉬웠다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일과 아띠 모두가 협동하고 단합된 하루라는 생각에 뿌듯하다. 그리고 거저축제 물품에 대한 분류체계와 더불어 창고에 후원물품을 분류하는 것부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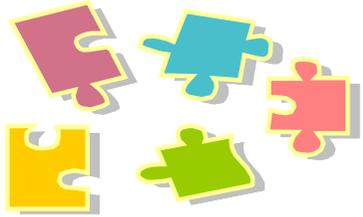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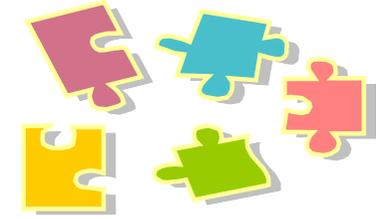


거저축제라는 큰 행사를 끝내놓고 다일 모두가 부족한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피드백을 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 크고 중요한 행사인 만큼 오늘의 실수들을 발판 삼아 다음에 있을 거저축제에서는 1인당의 수량, 거저축제 물품의 분류, 대상자 선정 등 디테일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넉넉한 시간과 마음을 가지고!!

도서관 프로그램

① 5월 8일 화요일 : 퍼즐 맞추기

KT&G 봉사단이 주고 간 후원물품 중 퍼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진행은 정민이가 맡기로 하고, 2인 1조로 퍼즐 한 판을 맞추기로 하였다. 과연 아이들이 즐거워할까 하는 우리들의 걱정과 달리 퍼즐을 보자 도서관 앞에서 들어오길 우물쭈물 하던 아이들이 신나게 안으로 달려 들어와 주었다. 이번에도 역시 도서관에 와서 즐겁게 퍼즐을 해준 아이들이 한없이 고맙다.



사실 이번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원래 우리는 국내 훈련 때 배웠던 천재고양이 박수와 자동차놀이도 함께 하려고 했으나, 아이들이 어려워하면서도 엄청난 집중력으로 퍼즐을 맞추고 다 한 것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 퍼즐을 맞추기로 하였다. 잘하는 아이들은 혹시나 하고 챙겨온 고난이도의 퍼즐도 맞출 수 있도록 하여서 다행이었다.

② 5월 22일 화요일 : 풍선아트

창고정리를 하다가 아주 많은 양의 아트용 풍선을 발견하게 된 우리들. 이제 장난감만 봐도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 중 아무도 풍선아트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기 전날 우리는 인터넷의 블로그 등을 통해 풍선아트를 공부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풍선아트를 글로 배우게 된다. 자라, 꽃팔찌, 뽕망치 등 마음은 굴뚝같은데 역시 글로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막상 풍선을 잡고 예행연습으로 만들

어보니 글과 현실의 차이... 모양을 내기위해 풍선을 비틀기만 해도 펑펑 터지는 야속한 풍선들. 그래서 결국 쉽게 만들 수 있는 강아지와 칼을 가르쳐주기로 하고 경서의 진행 아래 나머지 우리들은 풍선을 불거나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아이들도 우리도 풍선처럼 붕붕 뜨는 것 같이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③ 5월 31일 목요일 : 인형극

수원에서 있었던 국내훈련에서 배우고, 아이들 앞에서 시연까지 했었던 인형극. 인형극을 배워왔다는 소식을 이미 캄다일의 부원장님께서 알고 계셨고, 언제쯤 인형극을 보여줄 예정인지에 대해 기대를 하시고 계셨다. 그리하여 드디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형극을 준비하였다.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우리는 인형극을 할 동화로 「쓰레기 괴물」을 선정하였다. 동물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들이 모여 괴물처럼 보이는데 청소를 하고 나니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는 내용이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익숙한 이곳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인형극 준비는 2명은 극화 및 대본 번역을, 3명은 캐릭터 및 배경 만들기로 일을 분담하였다. 5명의 캐릭터들이 한 줄 정도의 대사를 하는 짧은 연극인데도 준비할 것들은 정말 많았다. 동화책이 없는 우리는 동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직접 그리고 색칠하는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물론 말할 때 목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몸통과 머리를 따로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빨대를 이용했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받침대도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동물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괴물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검은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인형극이 진행될 책상은 밥퍼에서 쓰는 것을 잠깐 빌리기로 하고 빨간 천막을 쳐서 우리의 모습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 그리고 모두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와 스피커도 준비하였다. 거저축제 준비로 인해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걱정을 했던 인형극은 단 5분 만에 끝나버렸다. 우리들의 부족한 발음 때문이었는지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인형극을 하도록 했더니 모든 아이들이 앞에 모여들어 같은 내용을 몇 번씩 듣게 되자 그제야 이해하고 즐거워했다. 인형극프로그램의 후속활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쓰레기 괴물을 그리는 것으로 했다. 쓰레기 괴물이라는 추상화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웠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형극에 나왔던 괴물을 그렸다. 하지만 같은 그림인데도 저마다 자신의 색깔로 채워서인지 모두 다른 모습이었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이름을 적어 우리가 받아 두었다가 이후에 도서관 벽에 붙여 줄 생각이다. 마지막에는 빵퍼에서 지원해 주는 빵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우리의 걱정과 달리 생각보다 성황리에 끝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다.





성황리에 마친 인형극. 하지만 이번 인형극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먼저 내용의 이해에 대한 의문이다. 인형극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우리들이 느낄 현장감도 중요하지만 의사전달의 정확성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임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참여도이다. 우리가 보여줄 때보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때 더 집중도가 좋았고 이해도 빨랐다. 이러한 점을 보면서 인형극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들이 돌아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세 번째로는 준비과정이다. 이번 공연은 짧은 감이 있었다. 다음에는 대본에 애드립도 보충해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 번째로는 우리들의 어깨에 지어지는 부담감이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재미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잘 것 없이 느껴질 것 같아 인형극을 기대하는 다른 스텝들의 기대감이 살짝 부담되었다. 마지막으로 후속활동에 대한 생각이다. 아이들에게 쓰레기 괴물을 그려보라고 하자 인형극에 나왔던 그대로 그리거나 예시로 보여준 괴물탈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 괴물' 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었다. 창의적 상상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이런 모방으로부터 창의성이 길러진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후속활동을 더 탄탄히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환경송과 친환경 아미풍풍

환경이란 주제는 우리가 캄보디아에 와서 계속해서 관심에 두고 있는 이슈이다.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되도록 환경으로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이 중 **첫 번째 주력 활동은 환경송 만들기이다.**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다일센터 내에 정착시키고 싶은 활동이다. 비록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들 조금씩 하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걷고 있는 중이다. 환경송은 저번 달 후반에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개사를 했고, 이번 달에 현지어로 된 노래를 완성시켰다.



크놈 짜올 썸버리어 무어이 (미은뽀야!) -> 내가 버린 조개껍질 하나(문제있어)

크놈 짜올 텅놈빵 무어이(미은뽀야!) -> 내가 버린 빵봉지 하나(문제있어)

꿈노 썸랑 클라이찌어 크마웃 짹크멩 -> 쓰레기가 모이면 괴물되어 잡아가

뜨러으 따에 짜올 썸랑 크놈 통 (엇짜!)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최고)

기타와 에그셰이커, 그리고 우리들의 울동을 곁들여 ‘밥퍼’ 배식 시간에 선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6월 둘째 주가 되면 아마 다 일센터에서 환경송이 크게 흘러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두 번째 주력활동은 친환경 ‘아띠풍뎡’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밥퍼 배식 후 설거지할 때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라이 맘(밥퍼 주방장)과 함께 풍뎡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우리의 의도를 금방 이해해 주셨다. 관심이 있는지 집에서 만들고 싶다고 하며 만드는 방법을 더 자세히 들으셨다. 그러나 밥퍼 후 설거지에 쓸 20리터의 풍뎡을 만들고, 식당에 비치하였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잘 사용하지 않는다. 만들고 나서 사용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지 못해서 현재는 사용빈도가 매우 적다. 하지만 아직 아띠풍뎡을 알린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분명 친환경 세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아띠풍뎡’ 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내에서의 어떤 환경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생활과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실천하며 알리는 것인데 먼저 각자의 마음에서 환경에 대한 의미와 의의를 찾기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 또한 생활의 부분이 아닌 일의 한 부분으로 진행하려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점점 사라지는 아시아적 감수성을 되찾을 때이다!!!!



교육활동(유치원·중학교 프로그램)

라운아띠 7기 캄보디아팀으로 프놈프라운 마을에서 활동들을 시작 한지 3달째이다. 3달이라는 시간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유치원, 중학교 활동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활동 초의 시선과 많이 달라졌다. 우선 교육 활동 중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 태도였다. 본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학교를 오지 않고, 학교를 오더라도 수업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이나 잡담 등을 하였다. 심지어는 우리들이 앞에서 수업 중일 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교실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학생들의 태도. 이러한 모습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의감과 동시에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 태도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 자체가 어찌면 그들에게 있어 폭력일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직 어려 철이 들지 않고, 배움에 대한 정도도 낮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캄보디아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어찌면 그것 자체가 이미 폭력성을 지닌 교육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으로 부원장님과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자는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학교 측의 반대(학교의 답변 :통역이 없어 의사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아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를 할 테니 수업은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한다.)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비록 우리가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이후의 아띠는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기에, 후 기수들은 이 점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렇게 중학교가 학생들의 태도 및 상황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유치원은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매번 다른 활동들에 치여 시간에 쫓기다 보니 타 활동에 비하여 완성도가 낮은 프로그램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고, 언어적 한계에 부딪혀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아이들에 대해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 같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장기 봉사단이기에 단기 봉사에서 느낄 수 없었던 많은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로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그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기 전에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수업에 대한 부담을 갖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학교, 유치원 활동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 우리 7기는 교육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 보았다.

진정한 교육. 그것은 결국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들 그 자체가 아닐까?

캄푹여행

5월도 캄보디아에는 휴일이 많은 달이다. 5월 9일에는 왕실 농경행사의 날(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국왕탄신일로 공휴일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왕탄신일에 캄푹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번 여행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약까지 하는 오롯이 우리들만의 여행이었다. 비록 가영언니(라온아띠 2기)의 큰 도움을 받았지만, 가영언니 또한 우리 라온아띠 아닌가! 이렇게 우리 6명의 짧은 여행이 시작되었다. 9시간을 달려야 가는 만큼 침대버스일 줄 알았으나 우리나라의 우등좌석버스 수준이었고, 분명 한 번에 캄푹에 도착한다 하였으나 프놈펜에서 버스를 갈아타야만 하는 버스였다. 이렇게 우리는 약 120도의 자세로 불편하게 12시간을 달려 두리안과 염전으로 유명한 캄푹에 도착하였다.



1박 2일 일정 중 비록 도착 날이지만 첫날 개념의 1일. 운이 좋게 숙소에서 캄푹에서 염전사업을 하시는 한국 분을 만나 유명하다는 염전공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국내방식으로 특수 제작된 비닐을 깔아서 그 위에서 소금 작업이 이루어져 결정도 하얗고, 생산성이 캄보디아방식에 비해 3배가량 높다고 한다. 다음으로 향한 깡섬. 일몰이 아름답다는 토끼섬 해안에 가려하였으나 이곳도 우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파도가 심하게 치는 탓에 가지 못하였다. 아쉽게 해변을 뒤로하고 저녁을 먹으러 찾아간 식당. 여행 전 조사에서 블로그를 통해 현지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하다는 현지식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인이 아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원래 캄보디아 식당의 느린 문화 때문일까? 주문을 하는 데에 만 1시간 정도 걸리는 어려움(엄청난 손님과 더불어 더러운 우리 테이블은 치워주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주문도 받지 않던 종업원의 태도)이 있었다. 그러나 숙소로 돌아와 가영언니와 우리 7기들과의 이야기꽃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니 캄푹, 이곳이 천국이 아닐 수가 없었다.



1박 2일의 마지막 2일. 돌아오는 날에는 국내영화 ‘알포인트’ 로 유명한 프놈보코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마무리하여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여행이었다. 또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프놈펜에서 방문했던 럭키몰에서는 시엠립과 달리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영화관이 있다는 것에 마치 한국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광경을 본 것처럼 모두가 탄성을 내며 사진 찍기에 바빴다. 영화관의 팝콘 냄새를 맡으니, 시간만 있었더라면 영화라도 한편 보고 오고 싶을 정도로 1시간 머물러 있었던 프놈펜의 풍경도 새롭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캄푹여행을 통해 우리는 캄보디아의 양면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캄보디아의 좋은 면(희)만 보였었는데 버스를 예약하면서 직원이 처음에는 싸게 해줄게, 나 한국 잘 알아 등의 말로 친절하게 상대하다 어느 부분에서인가 우리와 이야기가 통하지 않자 너희한테 표 안 판다고하면서 가라고 하는 모습. 한 번에 편하게 간다고 하였으나 막상 타고 보니 갈아타야만했던 버스.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과연 캄보디아의 문화인가? 문화라면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 이걸 문화로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캄보디아의 좋지 않은 이면(노)을 보았다.

바칼로레이

5월의 첫 번째 주제는 A4용지에 점 하나를 찍고, 그 곳에 점을 찍은 이유에 대해 말하기였다. 먼저 하늘이는 점을 가운데에 찍었고, 그 이유로는 점은 씨앗이자 시작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하늘이에게 씨앗은 비록 현재 이곳에서는 점하나를 찍지 못했지만 귀국 후에는 사회에 나가는 입장으로써 자신만의 점하나를 찍고 싶다고 하였다. 성희는 반으로 접힌 종이의 정 가운데에 점을 찍었지만 종이를 펴는 순간 마치 주변인처럼 점이 구석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소위 강남좌파처럼 이론적으로는 조직의 주변에 정체하며 약자를 옹호하여야함을 알면서도 마음속 안에는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중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였다고 했다. 노아는 종이의 맨 밑 구석진 곳에 점을 찍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곳이 많지만 가지 못하는 자신으로서의 점, 미래지향적인 삶을 원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자신으로서의 점, 마지막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지금까지는 자기 위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는 생각을 한 번 비틀어 제 3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서의 점을 나타내었다. 경서는 종이를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 점을 표현하였다. 이는 우주 블랙홀처럼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막상 사귀다보면 그 뒤에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크게 보이고 이후 빠져나가는 것이 더 큼을 느끼면서 복잡한 인간관계의 개념을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의미로서 점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나래는 점을 종이의 양 끝에 반반씩 찍어 한 점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종이의 위에 그려지는 점은 지금까지 20대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을 나타내고, 아래쪽의 점은 힘들었던 순간을 나타냄으로써 점을 통해 자신의 20대 인생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주제는 ‘왕년에’ 이었다. 주제가 던져지는 순간 우리들은 모두 어깨를 치켜세우며 “내가 왕년에 장학금을, 전교 몇 등을, 동네를 주름잡고,” 등으로 자기 자랑을 하였다. 경서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남부럽지 않은 체격의 소유자였으며, 학창시절에는 교내 스타크래프트 및 농구대회 및 각종 대회의 1위를 휩쓸었으나 사고를 많이 치면서 성장한 생각은 이전까지 왕년은 1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 왕년은 자기만족과 합리화의 수준으로 한번 웃고 넘어가는 기억의 단어라고 한다. 하늘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일기장의 수 표시, 시골로 전학 온 서울학생)이 먼저 떠올랐고, 학창시절 1등으로서의 삶,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선도부의 기억 등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학창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나래는 왕년에를 빨리 발음하면 ‘5학년에’ 라는 발음으로 들린다고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공주·부여 수학여행, 그 당시의 군것질거리, 놀이 등을 말하면서 요즘은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놀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과 같이 개인화되어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노아는 자신의 왕년에 시절 조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지식이 없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세상을 잘 모르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절로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씹쓸한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하였다. 또한 미래에서 보면 현재가 왕년이므로 현재를 잘 살고 싶다고 하였다. 성희는 왕년에라는 단어는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놀았다 수준이라 하였다. 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윤곽이 잡힌 20살 이후가 행복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전까지는 막연하게 사회복지에 대해 꿈꿨었는데 대학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직접 배우면서 학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바탕들이 현재 자신을 다양하게 사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5월.

나만의 생각 &

나만의 350PPM

5월 노아의 생각

1. 부스터 작동

3개월. 정말 빠르다. 하루하루는 긴데 뒤돌아보는 시간은 정말 빠르다. 3월, 4월, 5월 각 월의 하루가 너무 값진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것들, 쌓여진 것들 그리고 느끼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내가 가야할 시간은 정해져 있다. 유유투(천천히) 여유롭게 시간을 쓸 수 없다. 곧 방학시즌이라 이제 다일에는 봉사단이 매 주마다 온다. 봉사단이 올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 하는 궁금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잦은 사람들의 왕래로 인해 내가 유지하고자 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이나 마음가짐이 흐트러질까 겁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는 부스터를 작동시킬 타임이다. 초~ 집중!! 찰라아띠와 도서관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캄아띠 7기가 시작한 환경 송과 아띠풍풍. 더더더 집중하고 싶다. 지금까지 이 곳 캄보디아에서 살아온 시간들의 2배 더 진한 농도로 남은 시간을 이 땅과 이 곳 친구들에게 쏟을 것이다. 카트라이더에만 부스터가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이제 달린다!! 달린다!! 어짜!!

2. 익숙해져가

사람은 적응의 동물. 나도 캄 생활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익숙해 진 것들이 많아져 간다. 익숙한 결혼식 풍경, 동네에 울려 퍼지는 캄보디아 식 클랑 클랑 BGM, 꼬불꼬불 크마에 글자, 길거리 음식, 카페 뜰뜰뜰(연유커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타는 must have 자전거, 언제나 “예빠요~” 라고 외치는 툭툭이 기사님들, 5\$이면 무한리필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대박집, 진짜인지 모를 ‘진짜루’ 중국집.... 그리고 우리 병나래의 스페셜 푸드?ㅋㅋㅋ 무튼, 이 글을 적으면서 웃음이 절로 나는 건 곳곳에 스며있는 추억 때문이리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으려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대표적인게 점점 게을러지는 언어 공부다. 아! 미은빠야! (문제있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안 되면 손짓 발짓으로라도 어떻게든 소통이 되니까, 점점 언어 공부가 지겨워 지는게 사실이다. 휴. 매주 2번 있는 크마에 수업이 재미가 없다. **반성합니다.(u.u)**/ 그리고 막상 닥쳐야 하는 수업 준비습관도 **반성합니다.(u.u)**/ 충분히 자각하고 있으니 노력하자. 노아 짱! 미은빠야가 엇빠야(문제없어)가 되는 날까지 어짜!

노아의 개인 350ppm

처음에는 350ppm을 의식하고 억지로 몸에 배이도록 하려고 몇몇 활동들을 했다면 이제 그냥 평생에 좋은 생활습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 같다. 홍보 전단지나, 메모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이면지를 먼저 찾게 되고 또 거품을 평평 내면서 길게 하던 샤워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마치 미션 clear를 하듯) 여러 샤워방법? 을 궁리한다던가. ㅋㅋㅋ

하지만 양치컵 쓰기는 양치컵이 없어진 순간부터 또다시 잘 안하고 있다. 참.. 하나를 하려하면 다른 하나가 무너진다. 그렇지만 괜찮다. 지속적으로 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찾고 있고 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일도 목사님의 말이 생각난다.

“지금부터,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자!” 좋습니다^^ 쑤쑤쑤쑤!!!!

5월 성희의 생각

방황이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준비되지 못한 자신과 게으름으로 무장한 자신을 보며 힘이 든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열의를 갖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한심함을 느낀다.

3개월. 좋게 보이기만 하던 타국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타국으로 변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거짓말과 잘못에 대한 적반하장의 태도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쿨함을 보고 느끼며 '여기도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 사는 곳' 이라는 아주 자연스런 깨달음을 얻었다. 다른 나라라고 우리보다 더 행복하거나 아니면 더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은 모두 다 똑같다는 것. 행복과 불만족, 감사와 시기, 화해와 질투, 선의와 악의가 모두 함께,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타국에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더하게 되는 것 같다. 프놈프라운의 빈민과 한국의 빈민이 다를 것 없으며 서울의 그것과 씨엠립의 그것이 다르지 않다. 용산의 그것과 씨엠립 강의 그것이 다르지 않았다. 한국이건 캄보디아건 유럽의 어느 국가이건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이 함께 있다는 간단한 사실을 이제야 몸으로 깨닫는다.

다른 팀에 비해 한곳에 길게 거주하는 캄팀이기에 반복되는 일상을 보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한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걸까? 의지가 없는 이에게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나 관념에 대해 생각조차 못해본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성희의 개인 350ppm

이런 생각과 함께 활동을 하며 한국에 있을 때는 소리 약 지르며 반대했던 생각들이 나의 맘속에서도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환경이나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이들의 인식 속엔 이러한 관념들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당연하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드는 생각이 캄보디아의 지금의 경제상황과 현실 그리고 이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인권이다, 환경이다 말하는 것이 맞나 싶다.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할 것을 해야 한다는 내가 싫어했던 생각이 여기 와서 문득 들었다. 라온아띠 1기부터 7기까지 지속성을 갖으며 일했지만 현지 삶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슈퍼맨이 되려 하는 것일까? 정말 단지 마을에서 폐 안 끼치고 잘 살면 되는 걸까? 주저리주저리 썼지만. 요컨대, 길을 잃었다.

5월 경서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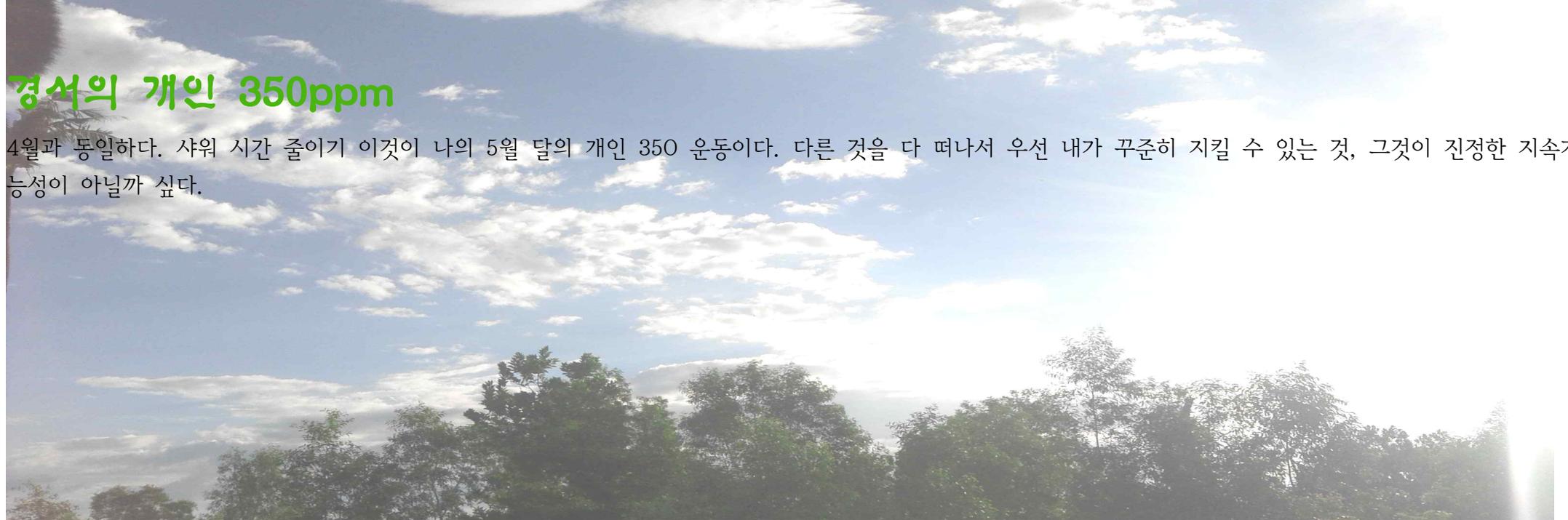
언젠가 한 지역에 가면 짧은 시간동안은 모든 게 즐겁고, 모든 사람이 착해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지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 좋은 면을 보게 되고, 짜증이 늘어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당시엔 그 말에 공감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의 3개월째인 5월. 그 말을 공감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5월은 짜증과 의문에 연속인 달이다. 현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주변 환경적인 요소들. 전부 3, 4월에는 느끼지 못했던 짜증이 느껴진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이들에게 있어 이방인이고,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는 말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서로의 문화를 논하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나 태도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사실들이 무시되는 상황조차 외면당하면서 까지 이들과 친구라는 이름으로 어울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써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봉사자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이 점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많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캄보디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점은 교육활동이다. 국내 훈련 때까지만 해도 현지에서는 단기봉사단이 하는 이벤트성 교육이 아닌 그들에게 지속 가능성을 안겨 줄 수 있는 교육을 해보자라고 다짐 하였지만, 막상 현지에 오니 그러한 생각 자체가 거만했던 생각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 요즘이다. 유치원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무언가 큰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고, 중학교 또한 짜여진 수업에 따라 수업이 진행 될 뿐이었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지속 가능성이란 이름 아래 우리 정서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현지 학생들이 우리에게 멀어지려 하려는 기분이 든다. 그들이 원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쌀라아띠를 진행 할 때와는 상반된 기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에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경서의 개인 350ppm

4월과 동일하다. 샤워 시간 줄이기 이것이 나의 5월 달의 개인 350 운동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선 내가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 싶다.



5월의 나래생각

5월의 캄보디아는 우기의 초입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하루에도 날씨가 오락가락이다. 오전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다가 오후 4시가 되면 한 시간 가량 무섭게 몰아치는 비. 변덕스러운 날씨 탓일까? 사실 마냥 행복했던 3,4월과 달리 5월에 나의 마음도 변덕스러웠다. 무기력함과 즐거움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내 마음 속에서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들이 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5월 한 달은 나에게, 팀에게, 그리고 우리 프놈프라운 마을 모두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본격적으로 시작 된 쌀라아띠 리코더반. 처음에는 나의 반이 생기고, 나를 넥끄루라 부르며 지금 수업을 하자고 말해주어 너무 고맙다. 이전 4기의 예림단원에게 배웠던 친구들 3명이 있어서 나의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친구들이 보조 선생님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리코더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쌀라아띠만큼은 마냥 즐겁게 진행 될 줄만 알았으나 2주 후 13명에서 6명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리은 춤. 엇 레잉 클로이(안 배울래요. 리코더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야속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사실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보는 기초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나의 욕심에 바로 리코더 부는 법과 내 기준에서 쉬운 노래를 붙여주고, 듣고 기억해서 불게 했던 나의 문제 있는 수업방식 큰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아이들에게 악보보고 불기는 무리이더라도 게이름을 가르쳐주고 게이름을 따라 적었다가 부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5명으로 줄어버린 나의 쌀라아띠는 어쩌면 좋을까? 매일 출근길 나의 가방 안에서 덩그러니 나의 리코더는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3,4월과 달리 5월은 모든 활동들이 중반에 접어드는 시기였고, 그만큼 나는 물론 우리 팀원들에게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던 것 같다. 지금 내가 하는 활동들에 있어서 너무 일적으로 받아들여 하루하루 일과 시작과 끝내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5월은 내 너무 길게 느껴지는 한 달이었고, 모든 활동들이 좋은 또는 안 좋은 나의 습관과 같이 되어버린 시간이었다.

나래의 개인 350ppm

3,4월 개인적인 350운동은 여전히 양치컵 사용하기에 멈춰있었다. 그럼 5월은 어떨까? 역시나 나는 양치컵 쓰기만 지키고 있다. 생각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나래답다가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5월만큼은 양치컵을 넘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환경적 행동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었는데... 굳이 이런 추가적 맥락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4월 정전사태 이후 5월에는 에어컨의 바람세기를 최소로, 모드는 절전모드로 맞추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국내훈련 때 다짐했던 에어컨 사용안하기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지만, 막상 캄보디아 현지에 와서 생활해보니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것 또한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이산화물 배출하기 위한 나의 작은 날개 짓인 의 시작이라 생각된다.

나의 개인 350과 더불어 5월 한 달은 우리 팀 내에서도 350의 일환으로 아띠퐁퐁(쌀뜨물로 만든 친환경세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비록 센터에서 전면적인 사용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숙소에서만만큼 아띠 퐁퐁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판 퐁퐁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나도 한국에 있을 때에 수세미에 거품이 많이 묻어야지만 마치 그릇이 보드득보드득하게 닦이는 줄 알았지...’ 지금 이 곳에서는 마치 내가 지구시민이라도 된 것 마냥 친환경 세제가 좋다고 이걸 사용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 집의 세제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생활 할까?라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나에게 350과 더불어 지구시민다운 생활은 마음으로는 공감하나 머리(지식으로서의)로서의 이해는 많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행동(실천)으로서는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 이런 내가 너무 한심할 뿐이다.

5월 하늘이의 생각

이번 달의 '아픔' 으로부터 시작했다. 뭘 잘못 먹은 것인지 배탈로 3일 동안이나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몸을 회복하자 정민이나 나래가 차례대로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까지 다녀왔다.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건강이 최고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우리 팀은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는데 이번 달은 내 차례였다. 정민이나 성희가 할 때는 가벼워 보이기만 하던 휴대전화가 정말 무겁게 느껴졌다. 리더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것을 챙겨야 할 일이 많았다. 어떤 일에 대해 제안을 하거나, 보고하고 감사의 말을 챙기는 것까지. 이번 달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리더는 본래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두 달 동안 뜨놈뜨라움 중학교 수업을 하면서 는 것이라고는 짜증뿐이었다. 수업이 있는 날에도 단체로 빠지거나 수업시간 중에도 떠들고, 중간에 나가는 일이 태반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것은 존중의 문제이기도 했다. 어디까지가 이들의 문화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5개월 동안 함께 할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의 수업 또한 문제가 많아 부원장님과의 회의를 통해 학교 측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출석률만 유지할 뿐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어렸을 적을 떠올렸다. 나도 영어 공부는 지루해서 하기 싫었고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기도 했었다. 거기에다 언어 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 없는 선생님에게 배웠다면 영어를 아예 포기했을지도. 그러나 대학교에 와서 원서로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꼭 언어적인 한국어로써가 아닌 다른 분야의 공부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 분야의 공부만 하다보면 다양한 어휘력을 배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전공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더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에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흥미를 느끼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드디어 이곳에서 인형극을 시연했다. 국내 훈련 때 잠깐 배운 것으로 많은 아이들 앞에 서려니 긴장이 됐다. 좋지 않은 현지어 발음에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듯 했지만 그래도 잘 참여해 주는 고마운 아이들. 생각보다 성황리에 끝나 다행이었다. 이 인형극을 통해 한 명의 아이라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된다면 정말 성공일 텐데. 첫 술에 배부르랴.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뜻 깊은 날이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인형극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부지런히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많았으면 한다.

하늘이의 개인 350ppm

퐁퐁과 환경송도 6월부터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자주 해서 이곳 사람들에게 환경의식의 씨앗이라도 심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나 또한 이곳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해왔던 개인 350ppm 운동을 더 열심히 유지해야겠다. 아직까지 편식 때문에 음식물 남기지 않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 작정이다. 캄보디아의 환경운동은 이곳 사람들과 나, 모두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는다.

우리 7기 캠프의 5월의 공통된 생각

5월.....습관처럼 모든 것이 익숙해져가 짜증과 무기력함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고민들.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무더움과 끈적함이 우리들의 활동들을 방해했지만.

습(燿, 빛날 습)이라는 한자어처럼 한국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8기 포스터 사진에 크게 실린 우리들의 모습.

5월 한 달은

‘기억의 습작’

(기억의 습작 : 과거의 일들이 좋았건 좋지 않았건 간에 결국에는 좋은 추억으로 기억된다.)

5월 한 달도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합니다.

